

연중 제 17주일

제 1독서 : 장세 18, 20-32

제 2독서 : 골로 2, 12-14

복 음 : 루가 11, 1-13

숲 정 이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루가 11, 10)

강 론

지겹다는 그 말을...

김진룡 신부 / 삼천동 천주교회

어허 참, 야훼와 아브라함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야훼는 소돔과 고모라를 죄값에 맞게 심판하시려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라도 야훼의 면전에서 심판의 진노를 면해보고자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위해 응원부대라도 동원해서 삼삼칠 박수에서부터, 기차 박수까지 목이 터져라 응원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죄없는 사람의 숫자가 50에서부터 20으로 내려왔고, 드디어 주먹을 한 번 쥐었다 펴면 될 정도까지 내려왔다. 점입가경, 응원부대의 목청도 이쯤되면 거의 선소리에 가까울 정도가 될 것 같다. “아브라함 오빠,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주먹이 쥐어졌는지, 펴지다 말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야훼의 심판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왜 내 손에 땀이 나지?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 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루가 11, 8) 아브라함의 중재가 실패했다고 우리의 감동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죄없는 사람은 오직 유일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었으므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골로 2, 12) 제2독서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중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중재의 삶을 살도록 한다. 그러기에 ‘주의 기도’는 우리 주님의 삶처럼 세상을 위한 중재의 기도이어야 한다. 주의 기도를 바치며 ‘지겹다’는 그 말쯤 해 보자.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소 리

여름휴가

인간의 능력과 체력은 한계가 있다. 시간과 반비례하는 것이다. 하루 중 능률이 가장 오르는 때는 오전 중이고 오후부터는 서서히 떨어진다. 오전중에도 마냥 능률적인 것은 아니다. 알맞은 휴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코피 브레이크’라는 게 있다.

1년 중 여름철 능률이 가장 떨어지는 것도 더위 때문만이 아니다. 1월부터 노동으로 인한 체력의 소모가 한계에 이르러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일이 잘 되지 않는다.

체력을 재충전 시키기 위한 휴식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여름휴가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노·사간에 절대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흔히들 여름휴가를 그저 놀기 위한 단순한 ‘레저’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여름휴가는 ‘스코레’라 생각해야 한다. ‘스코레’란 희랍말로 휴가이고 좀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보람있는 생활’로 지식과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인 것이다.

이미 바닷가의 호텔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고속도로는 여름휴가를 떠나는 차량행렬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삼풍참사에 이은 태풍 ‘페이’가 휩쓸고 간 상처로 여름휴가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이웃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숲 정 이 산책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④

형제에게 해 준 것이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안한운(데레사) / 노송동 천주교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에 관해 많이 듣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정작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자기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 놓는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조차 한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갈망하고, 이러한 갈망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가 있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이웃을 위해 열려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안한운(데레사, 47세)씨.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태오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 말씀이 떠올랐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다."(마태 25,4)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녀. 언제라도 이웃의 요청이 오면 즉시 달려간다. 화장기 없는 얼굴, 깔끔하게 빗어 묶은 머리 모양은 즉시 달려가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녀의 자세이다. 화장으로 곱게 단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름답게만 보였다.

그녀는 하느님을 알게 된 뒤로 한 번도 하느님을 떠난 삶을 생각하지 않았다. 성심여중 1학년 때 영세를 받고, 성심여고로 진학을 하면서 체험한 여러 행사들이 그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녀에게도 신앙 쇠퇴의 기간은 있었다. 신자로서 당연하게 했던 기도생활들이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은 성령세미나를 통해서였다. 그녀는 7남매의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갔다. 병환중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결혼 6개월 만에 돌아가시자 시동생, 시누이를 돌보는 일은 그녀의 몫이 되었다. 장부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4남매를 낳고 키우는 동안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다. 그러나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성령세미나에 참가하여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 뒤 지금까지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될만큼 건강했다. 더 기쁜 것은 성령세미나에 참가한 뒤부터 성서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란다. 말씀이 살아서 다가올 때는 모든 일이 기쁘고 행복해, 그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 모습에서 그녀가 하



성서를 읽고 있는 안 데레사 씨

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그 중 일 주일에 한 번은 꼭 '인보의 집'에 찾아가 할머니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준다. 이곳에서는 할머니들의 단순한 모습을 통해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이처럼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고 한다. 그녀는 이웃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은 작아지고 하느님만이 커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녀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성서구절을 제일 좋아한다.

그녀는 본당에서 성령기도회 회장, 레지오 단장, 구역부 사목회 차장, 성령봉사회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 성서공부는 십 년이 넘게 꾸준히 하고 있다. 그녀의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가족기도회를 갖는다. 남편(이창남 스테파노, 52세)과 자녀들(1남3녀)도 성서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기도회 때 돌아가며 성서를 읽는데 한 자녀가 읽지 않고 가만히 있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것 같아 양심이 찢려서 못 읽겠다'며 눈물을 흘려 모두 숙연한 적도 있었다.

언제나 하느님을 첫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자세이다.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찾아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늘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겠다. 안 데레사 자매님의 충실한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 취재 : 편 집 부

<p>시상·팔상 체질 감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권 재 갑(다두) 정 원 미(클라우디아) 중화산동2가 파출소 맞은편 ☎ (0652)224-6207~9 황명사상건강회</p>	<p>능력별 소수 정예전문 전북 청솔학원 고급·대입종합반, 중·고 그룹반 원 장 김낙필(시문) 기획실장 손 문(요한) 교무부장 문 철(임미누엘) ☎ 84-1030, 2030, 3477</p>	<p>PUMA 효자점 스포츠 의류, 신발류 가방, 수영복 장 재 식(베 드 로) 원 숙 영(기타리나) 효자 성당↔크리스탈 볼링장 ☎ 225-9912</p>	<p>LG(금성)에어콘 총판 ·에어콘,항온항습기,공기정화기 ·온풍기,태양냉장고,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리버)·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p>
---	---	---	--

잡간

5. 생명의 파수꾼인 여성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받으며 고통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와 마실 물과 먹거리가 생명의 보존과 성장을 위해 더 이상 자연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빚어낸 반생명적인 환경과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력을 침해당하는 자연처럼 소리없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생명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 속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의 현상, 낙태입니다. 낙태는 이미 생명을 지닌 태아로부터 생명을 빼앗는 반생명적 살인행위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내걸어 낙태를 합리화하더라도 낙태를 죽음의 현상으로 보는 것은, 태아가 생명은 있으나 스스로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생명경시 풍조는 자연히 생명의 창조와 보호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과정과 대상물을 비하시키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의 문란과 여성에 대한 억압입니다. 성의 남용과 그에 따른 무책임성은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단지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성을 왜곡 시킴으로써 특히 여성들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낙태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여성의 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반생명적인 환경으로 인해 여성이 몸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 권리와 결정을 타인과 사회에 빼앗기거나 포기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발휘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여성 자신입니다. 하느님께서 여성에게 '애기집'이라 불리는 자궁, 즉 '생명의 그릇'을 허락하신 것은, 여성을 하느님의 생명 창조의 파트너로서 선택하고,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사랑과 보호의 역할을 위임하신 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택과 위임을 저버리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배반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여성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생명의 파수꾼, 역사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제공>

요심이 (1143) 김병오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대전광장 앞
☎ (0652)75-0550

마리아 니스트 성소피정
· 때 : 8월13일~15일 오후 6시
· 장소 : 서울 마리아회 수련원
· 대상 : 고교생, 일반(미혼남성)
· 준비물 : 필기도구, 목주, 미사도구, 세면도구
· 문의 : ☎ (02)334-8547
이명재 스테파노 수사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개시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킷키아파트 앞
☎ 본사 :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 (0654) 467-6578~9

교구 소식

- 1. 교구청 직원 휴가 : 8월7일~12일 각 본당에서는 차질 없으시기 바람.
 - 2.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8월1일(화) 오후 6시30분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3. 가톨릭 문우회 모임 : 8월5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4. 여성 50차 꾸르실료 : 8월3일~6일 천호 피정의 집
 - 5. 성모 기사회 : 8월5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 6.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8월14일(월) 오전 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7. 순교자 현양시 공모 : 주제-전주교구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내용
원고마감-8월10일, 접수 및 문의-전동 성당(☎ 82-7245)
- ※ 축! 영명 : 31일 (성이냐시오) 성태수, 안철문 신부님

• 자원 봉사자 학교 개강 •
· 때 : 9월4일~11월6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가톨릭센터
· 수강비 : 2만원 · 접수마감일 : 8월20일까지(사회복지회 ☎ 84-5290)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 영 근(공사가)
장 정 신(점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여
최은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17주일
- ◎ 초·중·고 여름 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축! 세례명 축일: 본당 신부님(8월10일)
· 축하식 및 축하연-다음주(6일) 장엄미사 후
※ 미사 후에 사제를 위한 기도 있음
- 2. 복사단 소풍: 3일 상록 해수욕장 (저녁미사는 없고 새벽미사 있음)
- 3. 병자 봉성체: 4일 오전중
※ 사무실에 신청바람
- 4. 사목회 상임: 4일 저녁미사 후
- 5. 비품마련 특별헌금 봉헌액: 이영희-1만5천원, 익명-5만원, 소계-6만5천원, 누계-3,651만8,376원
- 6. 전입을 환영합니다.
· 정영순(안젤라)-남노6반 ☎ 84-2723
· 진영희(유리안나)가정-기린동1반 ☎ 83-6384
· 권오금(아네스)-중노20반 ☎ 231-4524
- 7.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반회장 모임은 다음주(10일, 목요일)로 연기합니다.
- 8.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2일 어머니미사 후)
②울프레아(6일 장엄미사 후)
- 9. 금주 청소: 인후 10, 11반, 차주 청소: 동진 1, 남노 1반
- 지난주 봉헌금: 984,580원 □ 교무금: 1,893,000원
- 2차헌금: 379,02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에 협조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30년사 편찬을 위한 2차 헌금: 오늘
- 2. 복사단 1일 야외회: 8월1일(화)
- 3. 청년회 하기 수련회: 5-6일, 장소-월평 유원지
- 4. 성우회 단합대회: 6일 오전 9시 출발
- 5. 대건회 가족 단합대회: 6일 오전 8시 출발, 장소-내면산
- 6. 신부님 휴가: 1-5일(미사 없음)
- 7. 모임: 울프레아-1일(화) 저녁미사 후
사목회-6일 저녁미사 후
- 8. 남성 51차 꾸르실료: 27-30(천호)
김용수 베드로·최정환 프란치스코 형제 많은 기도바랍니다.
- 9. 전입을 환영합니다: 이연규 치릴로(진북2반 전입)
- 지난주 주일헌금: 625,550원 □ 교무금: 1,148,5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정성스런 기도와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 오늘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1.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다음주일
-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1일(화)~4일(금) 성당, 8시30분
- 3. 감사: ①초·중·고 여름행사 후원금-장년회 15만원, 성모회, 황대호 각 5만원, 황 히랄리도, 김성진-각 3만원, 성대적-2만원, 안모니카-1만원, 2차헌금 19만1천원, 계: 53만1천원, 누계: 1백7만1천원
- 4. 유아 세례: 오늘 9시 성당
- 5. 병자 봉성체: 9일(수)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6.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 7. 레지오 단합 야외회: 7일(월) 부주 구원동
- 8. 첫영성체 교리: 매일 오후 2시부터
- 9. 성당 청소: 금주-바다의 별Pr.
차주-천사의 모후Pr.
- 10.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한동욱 ②이순자
봉헌-강순용 가정
- 11.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최경림 ②송정자
봉헌-김완식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62,770원 □ 교무금: 7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 금주 모임 안내: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유아방
사목회-8월1일(화요일) 후 8시30분
자모회-8월3일(목요일) 레지오 회합 후 회합
실
- 2. 차주 모임 안내: 꾸리아-8월6일(일요일) 후 2시, 장소-강당
성심회-8월9일(수요일) 전 10시30분
울프레아-8월10일(목요일) 후 7시30분
프란치스코협회-8월13일(일요일) 후 2시
- 3. 남성 51차 꾸르실료: 7월27일(목요일) 후 4시~7월30일(일요일)
참가자: 최기호(도마) 박종철(바오로) 김종호(프란치스코)
※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4. 초·중·고 교리교사 MT: · 일시-8월7일(월)~9일(수)
· 장소-문정리 공소(경남 함양)
- 5. 전례단, 복사단, 수련회: · 일시-8월3일(목)~4일(금)
· 장소-소항공소(고산 본당)
- 6.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5시30분, 장소-1회합실
- 7. 청소 안내: 금주-정의의 동정녀, 차주-사랑하옵 어머니
- 8.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캠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68,900원 □ 교무금: 1,246,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1. 금주: ①교무금 납부주일
②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 2. 성가정회: 1일(전 11시)
- 3. 성모 성심회: 3일(후 3시)
- 4. 성체강복 및 조배: 3일(전 10시)
- 5. 병자 봉성체: 4일(후 2시)
- 6. 여성 제50차 꾸르실료 입교: 많은 기도바랍니다.
8월3일-6일 방갑남(율리안나) 김연경(안젤라)
- 7. "무공해 비누" 만드는 새 봉사 단체
<단불회>발족: 7월20일, 회장: 정 안젤라, 부회장: 오 마리아,
총무: 임 비아, 재무: 현 루시아 * 매우 수직 많은 협조바랍니다
(사무실로 연락)
- 8. 순교자 현양시 공모: 주제-순교자 현양(최초의 순교자 윤지중
과 관상연을 현양하는 내용, 전주교구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내
용) 응모마감-8월10일까지, 보좌 신부님에게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참조. 문의전화: 82-7245
- 9. 차주: ①계속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②에덕의모후 꾸리아(후 2시)
③요셉회(후 6시)
④울프레아(후 8시)
- 주일헌금: 2,008,84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
다."(루가 11, 10)
- ◎ 오 말다 수녀님 영명(29일): 영육간 건강하심을 빕니다.
- 1. 구역 반회장 연수: 8월1일 전 10:30 반별로 전입자 보고
- 2. 성체강복 및 성시간: 매일 첫 목요일(8월3일) 저녁미사 후
- 3. 반미사: 8월2일 저녁 8시, 7-3, 8월4일 저녁 8시, 7-4
- 4. 형제 기도회: 8월1일 저녁 8시30분 8-12
- 5. 유아 세례: 8월5일 후 3시(사무실에 미리 신청)
- 6. 여성 제50차 꾸르실료 감승회: 8월3일~6일(천호)
박선희(안젤라), 공양자(사비나) 기도 부탁드립니다.
- 7. 회의: 부녀회-8월2일 어머니미사 후
꾸리아-8월6일 오후 2:30
성지회-8월6일 공식미사 후
- 8. 여름 신앙학교(수련대회)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은인들과
의약품 지원 및 차량운행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9. 보리쌀 판매에 수고해주신 여성분과 위원과 협조해주신 자매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 10. 축복미사:
· 8월1일 오전11시30분 평화주공507동502호 이병남(비트리아)
· 8월5일 오전11시 평화주공504동902호 이철례(루시아)
- 지난주 봉헌금: 1,449,730원 □ 교무금: 2,109,000원